

손목에 '작은 건강센터'… 하반기 스마트워치 삼국지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총 4종 선봬… 29만9200원 부터

가민 '피닉스6' 시리즈

17일 출시… 태양열 충전기술 적용

애플 '애플워치5' 시리즈

티타늄·세라믹 케이스 추가할 듯



'갤럭시 워치 액티브2'.



버사2.

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돋는다.

애플도 내달 '애플워치5' 시리즈를 공개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 워치5에 티타늄 혹은 세라믹 케이스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애플 워치 전용 앱스토어와 계산기, 음성메모 등 독립 구동 앱도 기대된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1차 예약판매를 진행한 샤오미 '미 스마트 밴드4'는 4시간 만에 초도물량 1만대가 완판된 데 이어, 더 많은 물량으로 23일 진행된 2차 예약판매에서도 하루 만에 품절됐다. 미밴드4는 3만1900원으로 가격이 최대 무기지만 전작보다 화면이 39.9% 커졌으며 기능도 업그레이드됐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에 음성인식을 통한 인공지능(AI) 비서도 탑재되는 추세다. 핏비트는 국내에서 오는 16일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스마트워치 버사2에 핏비트 스마트워치 최초로 AI 비서를 탑재했다. 아마존의 음성인식 AI 비서 '알렉사'를 적용했으며 운동을 시작하거나 가까운 피트니스 센터, 섭취 음식과 칼로리 소모량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버사 2로 음성 지시를 내리면,

알렉사는 무음의 스크린 텍스트를 통해 응답한다.

알렉사 음성 지시를 통해 알람과 타이머 설정, 일기 예보나 뉴스 확인, 스마트 헤기 확인 등 일상적인 일을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음성을 통해 문자와 알림에 답할 수 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도 삼성의 AI 비서 '빅스비'를 지원한다. 홈 버튼을 2번 누르거나 화면이 켜져 있을 때 '하이 빅스비'라고 호출한 후 음성으로 명령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 운동 기록을 시작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 제조사는 AI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가민은 빠른 시일 내 AI 기능 탑재를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는 123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애플이 570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46.4%로 1위를 유지했고 삼성전자가 200만대를 출고해 2위(15.9%)를 차지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스마트워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스마트워치 제조업체가 하반기 다양한 스마트워치를 출시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핏비트, 가민 등이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하거나 사전판매를 시작했다. 스마트워치 강자 애플도 이달 중 새로운 애플워치5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워치 가격은 기능에 따라 3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천차만별로 소비자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액티브2' 블루투스 모델의 사전 판매를 30일 시작했다. 공식 출시는 오는 6일이다.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위해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이다. 크기와 소재 등에 따라 4종으로 나뉘며 가

격은 29만9200~44만원이다.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삼성 헬스·스마트싱스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삼성 애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하도록 해 삼성의 갤럭시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가민은 지난 30일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미엄 스마트워치 '피닉스 6X' 시리즈를 공개했다. 출시일은 17일이다. 총 4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99만~138만원이다. 전국 가민 브랜드샵 및 공식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된 4종 중 피닉스 6X 프

로 솔라 모델은 가민 최초로 태양열 충전 기술을 새롭게 적용했다. 가민 제품은 피닉스 6X 기준 스마트워치 모드로 최대 64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스포츠 마니아층에게 인기 많은 브랜드로 꼽히는 가민은 피닉스 6 시리즈에 코스 러닝 시 러너가 전략적으로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구간 별로 가이드를 제공하는 페이스 프로 기능을 선보였다. 가민의 '바디 배터리' 기능은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에너지 보유량을 측정하고,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활동, 휴식, 수면 스케줄

제네시스 G80 '럭셔리 스페셜' 출시

G80 판매 10만대 돌파 기념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대형 세단 'G80'의 누적 판매수 10만대 돌파를 기념해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한 G80 스페셜 트림 '럭셔리 스페셜(사진)'을 신규 출시한다.

1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G80은 2016년 7월 국내에 첫 출시된 이래 지난 7월까지 누적 11만3416대가 판매되며 국내 프리미엄 대형 차급의 스테디셀러 모델로 등극, 시장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전 모델이자 2013년 12월 출시된



2세대 제네시스(DH)를 포함하면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21만0275대로 채 6년도 되지 않아 누적 판매대수 20만대를 넘어섰다.

제네시스는 G80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를 기념하고, 판매 성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한 G80 스페셜 트림 '럭셔리 스페셜'을 선보이기로 했다.

럭셔리스페셜 트림은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한 데 묶어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1~7월 국내 판매된 G80 1만4014대 중 85.0%(1만1905대)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사랑 받고 있는 가솔린 3.3 모델에서 해당 트림을 선택할 수 있다.

G80 가솔린 3.3 럭셔리 스페셜 트림의 가격은 5154만원으로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르노삼성, QM6 '디젤모델' 첫 선

연비·주행 초점 '더 뉴 QM6 dCi'

르노삼성자동차가 뛰어난 연비를 갖춘 '더 뉴 QM6 dCi'를 선보인다.

르노삼성은 1일 더 뉴 QM6의 디젤 모델을 내놨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LPG 모델은 먼저 출시됐다. 디젤 모델인 더 뉴 QM6 dCi는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중 가장 높은 연비와 주행성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르노삼성은 설명했다.

종전엔 2.0 모델만 있었는데 더 뉴QM6엔 1.7L 다운사이징 엔진을 더했다.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1.7dCi 2WD 모델은 17~18인치 휠 기준 연비가 14.4km/L로 국내 판매 중인 동급 디젤 SUV 중 최고다. 2.0 dCi 4WD는 18인치 기준 연비가 12.7km/l로 기존 모델보다



로노삼성 더 뉴 QM6 dCi 모델.

개선됐다.

가격은 1.7 dCi 2WD 모델이 부가세를 포함해 SE 트림 2725만원, RE 트림 3019만원, RE 시그너처 트림 3319만원이다. 2.0 dCi 4WD는 RE 트림 3270만원, RE 시그너처 트림 3584만원이다. 프리미어는 2.0 dCi가 3859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오프로드 최강자… 3.2t 견인 '괴력'



쉐보레 '콜로라도'

기계식 디퍼렌셜 잠금장치 적용
범피·경사로 등서 안정적 주행
'토우·홀 모드'에 무거운 짐 가뿐

'정통이냐 친절함이냐.'

한국지엠이 올 하반기 야심작 중 하나인 쉐보레 '콜로라도'는 남성적이고 거친 이미지의 '아메리칸 정통 픽업트럭' 성능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무거운 캠핑카를 연결하거나 높은 경사로를 주행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차량의 외관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난온·오프로드 어디든 갈 수 있어!'라고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특히 혐로 주행을 위한 기능도 대거 탑재돼 안전성도 확보했다.

쉐보레의 100년 꾸준한 기술력을 완벽하게 담아낸 콜로라도는 동급 최장 휠베이스(3258mm)와 대용량 적재 능력(1170L)을 갖추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지엠이 강원도 횡성 웰리할리파크에서 개최한 콜로라도 시승 행사에 참가해 슬로프 주행, 오프로드 체험, 트레일러링 체험을 진행하며 차량의 다양한 성능을 체험했다.

이날 시승 차량은 콜로라도의 '익스트림 4WD'를 탑승했다. 해당 모델은 운전 상황에 따라 4륜 또는 2륜 구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파트타임 4WD' 시스템을 지원한다. 노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 방식을 변환하는 오토(AUTO) 모드를 동급 유일



한국지엠 쉐보레 콜로라도가 오프로드 코스를 빠져나오고 있다.

적용해 손쉽게 차량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콜로라도를 타고 웰리할리파크의 높은 슬로프를 올랐다. 자갈밭, 흙길, 코너구간 등 거친 혐로를 통과하면서 콜로라도의 진가를 느낄 수 있었다. 미끄러운 경사로면에서 차량이 밀리거나 와인딩 구간에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치고 나갔다. 최고 출력 312마력, 최대 토크 38kg.m의 3.6L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

매틱 8단 자동변속기로 높은 경사로를 완전히 장악했다. 코너를 돌 때는 트랙션 장치가 가동돼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콜로라도의 매력은 범피와 수로, 머드, 언더 및 사면 경사로로 구성된 오프로드 코스에서 한층 배가된다.

콜로라도는 좌우 휠의 트랙션 차이에 따라 차동 기능을 제한하고 '기계식 디퍼렌셜 잠금장치'가 적용돼 노면이 불균형한 오프로드에서도 인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좌우 휠의 트랙션 차이가 극도로 커질 경우에는 차동 기어를 자동으로 잡그는 기능까지 적용돼 있다.

시승 체험을 한 결과 정통 픽업트럭의 견인 능력과 뛰어난 혐로 주행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로라도는 익스트림, 익스트림 4WD, 익스트림-X의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3855만원, 4135만원, 426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으로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트레일러링 코스에선 1.8톤 카라반을 견인했다. 3.2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콜로라도는 회전구간과 지그재그 코스 주행에서 흔들림 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콜로라도는 무거운 짐을 실은 상태에서 최적화된 변속패턴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돋는 토우·홀 모드가 기본 적용됐다.

콜로라도에는 '히치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기능이 포함된 리어 뷰 카메라가 적용됐다. 이는 대형 트레일러 연결 시 주행자 혼자서도 간편한 연결이 가능하게 도와주며 스웨이 콘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트랙 차체 제어 시스템을 통해 견인되는 트레일러의 벨런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시승 체험을 한 결과 정통 픽업트럭의 견인 능력과 뛰어난 혐로 주행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로라도는 익스트림, 익스트림 4WD, 익스트림-X의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3855만원, 4135만원, 426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